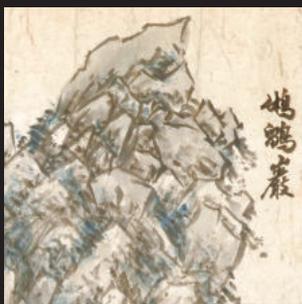


박물관사람들

2022년 가을 · 78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2년 가을 78호

기획 / 서화실

- 04 | 먹 향기 그윽한 시 그림
- 08 | 애증의 이름
- 12 | 그냥 흔들리다

문화칼럼

- 16 | 아시아를 잇는 철, 철기

회원마당

- 20 | 함께하니 좋지 아니한가

답사기

- 24 | 자전거로 찾아간 한성백제

전시실산책

- 28 |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박물관회 소식

- 32 |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숨은전시

- 33 | 왕중왕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정수영, <한임강유람도권>중 여주 휴류암



발행일 2022년 9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경 진행 강지은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기 기이한 그림

既 歸 於 下
 山 妻 子 供
 則 稚 供 然
 一 飯 筍 菜 欣

‘한가해야만 물과 대나무, 구름과 산의 주인이 될 수 있고閑爲水竹雲山主/고요해야만 바람과 꽃, 눈과 달을 누릴 수 있다靜得風華雪月權’ 중국의 화가 여죽계가 쓴 대련對聯이다. 한가롭고 고요한 가운데 살아 있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림을 연상시키는 시문이다. 선조들은 이러한 시구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을 즐겨하였다. 바로, 서화書畫의 한 장면이다. 글을 곁들인 그림, 서화는 일상의 모습과 자연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그림과 글로 표현한 차원 높은 예술이다.

여기, 박물관 2층 ‘서화관’에는 이인문(1745~1824)의 병풍산수화 걸작,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 중 ‘수의독서도隨意讀書圖’와 ‘맥반흔포도麥飯欣飽圖’ 두 폭이 은은한 먹빛의 향기로 서화의 멋을 더하고 있다. ‘산정일장도’의 전시명은 ‘조용한 산속의 긴 하루’이다.

‘산정일장도’는 중국 남송대 문인 나대경이, 어느 여름날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속 생활의 이상적인 삶을 읊은 시를 이인문이 그림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정선을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산정일장도’를 그렸다. 조선 후기 화가들 중에서도 이인문은 ‘산정일장도’를 특히 많이 남겼다.

비단에 얇게 채색한 병풍 그림인데 모두 8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폭만 남아 있다가 2019년 제5폭(농필전첩도弄筆展帖圖)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제2폭(수의독서도 또는 산가독서도山家讀書圖), 제



이인문, <조용한 산속의 긴 하루> 중 맥반흔포



이인문, <조용한 산속의 긴 하루> 중 수의독서

4폭(맥반흔포도 또는 산처치자도山妻稚子圖), 제7폭(의장시문도倚杖柴門圖), 제8폭(월인전계도月印前溪圖) 등 4폭이 소장되어 있다.

‘수의독서도’와 ‘맥반흔포도’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 위쪽의 글씨는 서예가 유한지가 예서체로 썼다. 나대경이 지은 「산거山居」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진 작품인데 유한지의 실수로 이 두 그림의 글이 서로 바뀌었다.

‘수의독서도’에는 ‘隨意讀周易, 國風, 左氏傳, 離騷, 太史公書, 及陶杜詩, 韓蘇文數篇.(마음 가는 대로 『주역周易』, 『국풍國風(시경)』,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이소경離騷經』, 『사기史記』와 도연명陶淵明과 두보杜甫의 시, 한유韓愈와 소동파蘇東坡의 작품을 읽는다.)’라고 쓰여 있다.

시구에서 언급했듯이 선비는 서안 앞에서 책을 읽고 있다. 두루마리 책을 안고 마당가를 걸어가고 있는 시동의 모습, 먼 밭에서는 농부가 소로 밭을 가는 모습, 집 앞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바위 위 평상에 술병과 두루마리 책과 붓이 꽂혀 있는 통 등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선비가 시원한 냇가에서 책도 읽고 시도 지은 흔적이리라. 묘사된 모든 사물들이 살아 있는 듯 생기가 느껴지니, 선비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문밖에서 있는 꼬리가 까만 황새가 귀동냥을 하는 듯 부리를 쫓긋 세우고 있다.

隨 國 傳 及 陶 數 篇
 意 離 騷 左 氏 周 易
 讀 太 史 公 書
 韓 蘇 文 數 篇



정선,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다(유연견남산도)>

이인문은 세필을 사용하여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했다. 모든 사물과 풍경을 어찌나 섬세하게 표현했는지 숨은그림찾기 하듯 하나하나 찾아가는 즐거움이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또한 시구의 내용을 그림으로 감상하다 보면 먹 향기의 멋에 취하게 된다.

제4쪽의 그림은 거친 보리밥을 달게 먹는 '맥반흔포도'다. '既歸臥窓下, 則山妻稚子. 作筍蕨供麥飯, 欣然一飽.(집으로 돌아가 창문 아래 쉬면 산골 아내와 자식들이 죽순과 고사리 반찬에 보리밥을 지어내니 기쁜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내용이다.

그림은 글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낡은 지붕 아래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선비의 모습, 옆 건물에 보이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 문밖의 밥그릇을 들고 가는 시동의 모습, 활짝 열려 있는 사립문 등 생활의 정서가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왓장이 떨어져 나간 지붕 위 등나무꽃과 뒤뜰의 오동나무꽃이 화사함과 함께 전체적인 먹빛의 은은함을 부추긴다.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먹빛 깊은 사립문 밖의 소나무는 그림의 기품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인문은 이상적 세계관을 장엄하게 그린 산수화를 많이 남겼다. 특히 김홍도·박유성과 동년배로 절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화풍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인문은 전통적 화풍, 상상으로 그리는 관념산수화를 주로 그렸다.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는 이인문의 대표작이자 일대 걸작이다.

서화관에 함께 전시되어 있는, 도연명의 시구를 그림으로 옮긴 정선(1676~1759)의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다(유연견남산도悠然見南山圖)>도 눈길을 끈다. 중국 동진시대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와 '음주시飲酒詩' 구절에서 따온 이미지를 부채에 그렸다. 선비는 노송을 어루만지며 무념무상으로 먼 산을 응시하고 있다. 소나무의 위엄과 선비를 둘러싼 자연에 기대어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걸까? 그림을 감상하고 있으면 무념무상이 되며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인문의 '조용한 산속의 긴 하루'와 정선의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다'처럼 옛 서화가들은 시나 고전명구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심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즐겨 하였다. 시를 그림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시의 뜻을 제대로 그림으로 옮기지 못하였다고 시를 백번 이상 읽어보라는 훈계를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번 '뱅크라이브국제콩쿠르' 우승자 임윤찬이 단테 소나타를 연주하려고 단테의 『신곡』을 외우다시피 읽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음악가든 화가든 작품을 아름다운 울림으로 완성해 내려면 작품의 근원인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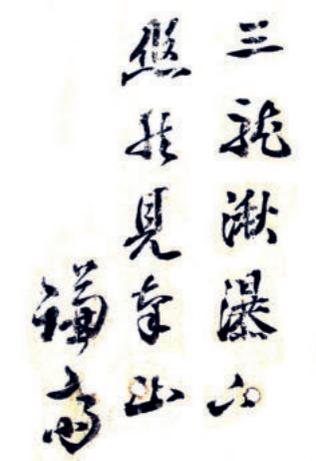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다> 부분

이렇듯 서화는 글의 내용을 먹빛의 깊고 중후함으로 고풍스럽게 풀어낸다. 그림에서 그윽한 향기마저 느껴진다. 대자연의 일부가 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담아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깊은 먹빛에서 느껴지는 은은함에 젖어 옛 선조들이 던지시 던졌을 한마디를 떠올려 본다.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아주 잊어버릴 만하구나.' 🌿

강현자 회원



<수의독서> 부분



애
징
의
이
범

- 19세기 말까지 도심에 표범 살았다.
- 한겨레
- 19세기 말 한양 도성엔 범 거닐었다.
- 동아일보
- 범은 아니었다, 100년 전 서울 궁궐 점령한 '큰 고양이' 정체
- 중앙일보

2021년 11월 16일 자 각종 일간지에 19세기 한양 도성 내에 살았던 표범에 대한 학술연구를 다룬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의 목격담 등 기록들을 분석해보니 19세기 기준으로 지금의 서울시 인구밀도와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던 한양 도성 안에서 약 500년간 인간과 표범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도성 안을 돌아다니는 개와 민가에서 기르는 돼지 등의 가축, 그리고 궁궐에서 기르던 사슴 등이 그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은신처는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된 경복궁 등 버려진 궁궐터나, 벌목과 매장이 금지되었기에 인구밀도가 낮고 숲이 우거졌던 조선판 그린벨트인 성저십리城底十里에 마련했을 거라 합니다.

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각각을 부르는 여러 명칭이 있었는데 호랑이는 줄범, 참호랑이라고 불렀던 것에 비해 표범은 알락범, 매화범 그리고 개호랑이라고 접두사 '개'를 붙여 불렀던 것을 보면 표범은 짝퉁 호랑이 정도로 생각했던 걸까요? 표범은 암범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하니, 여하튼 옛사람들은 표범한테도 호랑이 대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달빛 아래 솔숲 사이 호랑이들月下松林虎族圖>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랑이 다섯 마리, 표범 여섯 마리가 어울리는 중에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하필 표범입니다. 자연에서 이들은 먹이 경쟁 상대라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몇 분 내로 뭔가 사달이 날 법하겠지만, 그



작자미상, <달빛 아래 솔숲 사이 호랑이들(월하송림호족도)>

림에선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맹수를 표현한 만큼 다들 눈은 도끼눈인데, 분위기는 명절에 모인 대가족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는 웬지 아버지 같고, 엄마한테 꾸중을 듣는 듯한 아기 표범의 시선을 보니 혼나면서 탄생각을 하나 봅니다. 옆에서 다른 놈이 그걸 고소해하며 간쪽거리고, 엄마 등에 올라탄 녀석은 고자질을 하고 있나요? 그 옆의 호랑이와 표범들은 이야기를 엮기에 따라 삼촌도 숙모도 사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호랑이해인 데다가 작년에 호랑이 그림을 많이 기증받은 덕에 2층 서화실에서는 연초부터 여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호랑이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호랑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 애기와 속담과 지명에는 유난히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호랑이는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효성스럽고,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며, 어리숙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일도 많아서 어떨 땐 애처롭습니다.

하지만 그림과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건 현실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린다면 바로 황천길행입니다. 크고, 사납고, 힘세고, 날래고, 수영도 잘하고, 나무도 제법 타니 맛 붙이는 커녕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얼어붙어버릴 밖ですよ. 이렇게 한 반도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동물에 대한 공포는 이내 경외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산신도>를 보면 호랑이가 산신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호랑이를 제어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의 영역이겠지요. 산신의 심부름과 호위를 하다가 종종 산신을 등에 태우기도 한답니다. 그림 속 호랑이는 영물이라서 그런가 매우 온화하고 편안해



작자미상, <호랑이와 까치>



작자미상, <호랑이>

보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호랑이를 주신主神으로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산군山君, 산주인 등으로 불리며 호랑이는 산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성한 존재인 범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으려다 보니 대체어인 호랑이라는 명칭이 대신 정착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아무리 산신이라고 하지만 호환이 어찌나 극심했는지 중국엔 “일 년의 절반은 조선인들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절반은 호랑이가 조선인을 사냥한다.”라든가 “조선 사람은 일 년의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고 보내고, 일 년의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는

을 네 번 부를 때까지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세 번까지만 이름을 부르는 창귀에 홀리지 않으려는 까닭인데, 이는 호랑이에게 끌려가는 사람의 구조요청을 어쩔 수 없이 외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일설을 듣고 보니 그 공포의 크기를 막연하게나마 가능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모든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가 어찌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경지면적이 늘어나면서 호랑이와 인간의 영역이 겹치게 되었던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영역이 좁은 만큼 야생동물도 줄어드는데, 민가로 내려가면 가축들이 있는 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쇠한 호랑이들에겐 인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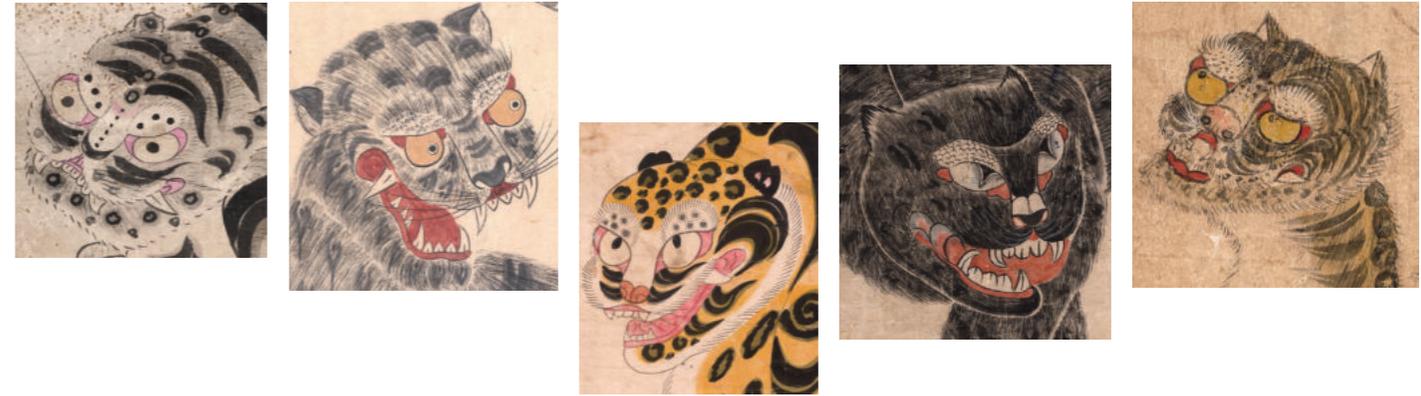
작자미상, <산신도> 부분



작자미상, <호렵도> 부분

라 보낸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태백산 일대에는 호랑이가 먹다 남긴 사람들을 수습하여 묻은 호식총虎食塚이라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특수한 무덤들이 160여 기나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창귀倥鬼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호랑이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멸시키고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가 자기 이름

을 손쉬운 사냥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란을 거치면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착호군이 활동을 제대로 못한 데다가 <호렵도胡獵圖>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지역에서 호랑이 사냥 붐이 일면서 호랑이들이 대거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역은 자꾸 넓어지는데 호랑이 숫자는 늘어났으니 호환이 줄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복을 빌고 귀신을 쫓겠다며 까치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 그림들은 익히 알듯이 갈수록 우습고 익살스러워집니다. 그런 얼굴로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랑이 줄무늬와 표범의 매화 무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예쁜 건 다 그려준 걸까요? 전시실 호랑이들 중에서 가장 무서워 보이는 녀석을 굳이 하나 골라봤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그나마 무섭게 표현된 것 같은데 실은 그다지 안 무섭습니다. 눈빛이 제법 형형한데도 묘하게 웃는 상 같습니다. 호랑이 하나하나 얼굴만 유심히 뜯어보는 것은 재밌습니다. 화가의 실력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숙한 호랑이가 나오는 설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 바른 강아지 한 마리로 호랑이들을 줄줄이 꺾어버린 기름 강아지 이야기에서 그들은 단체로 능욕당합니다. 신으로 섬겨도 사냥을 해도 어찌해보기 힘든 강자에 대한

소심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미운 정이라도 들어버린 걸까요?

과거에 도성과 궁궐에까지 드나들 정도로 많았던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진 이 나라의 도시와 자연은 이제 거의 인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협이 될 만한 동물이 라곤 들개가 되어 버린 유기견들과 멧돼지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표범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인간과 맹수의 공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호랑이와 표범들이 멸종됐다고 분개하지만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그들과 부대끼면서 많이 두렵고도 미웠을 텐데도 터부시하는 대신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와 그림들을 남긴 우리 옛사람들이 새삼 특별해 보입니다. 🐾

서유미 회원



그냥 유람하러 다

귀로 시를 쓰는 시인이 있다. 귀가 전하는 신음, 한숨, 노래, 비명 비슷한 것이 시가 된다고 한다. 영혼처럼 중요한 귀가 망가져 편집 기능을 잃었을 때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다는 그녀의 역설이 이명처럼 울려 점이 된다. 고유한 존재인 인간과 자연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놓도록 닦달하는 ‘몰아-세움(Ge-stell)’의 세계를 역류하는 그녀의 시론은 견고하고 슬프다. 느닷없는 슬픔의 언저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하고 다가온 어느 화가의 발자취에 흔들린다.

서화실 가운데 두루마리 형태로 누워 있는 <한임강유람도권漢臨江遊覽圖卷>이다. 3년 전 여름 조선시대 실경산수화 전시를 통해 알게 된 지우재 정수영의 작품으로 임진강변 일대의 장면이 전시 중이다.

정수영의 화가로서 활동 연대를 보면 정조 연간과 19세기 화풍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화단에서 위치나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수영에 관심을 가지고 산재한 작품과 가계를 조사한 미술사학자에 따르면, 생애를 시·문·서·화로 은일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정인지의 후손이고 영조 때 실학자로 근대식 지도를 제작한 정상기의 증손이다. 그의 기행사생화첩은 지명과 유래에 대한 식견이 보이는 기행시문과 사경寫景에 심취한 화가로서의 자질 등 지리학 명문인 집안 전통과 연관성이 드러나 주목받는다. 장수한 그의 말년 작품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관심을 갖고 기다려 볼 부분이다.

<한임강유람도권>은 <한임강명승도권>으로도 불려 왔다. 정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명승의 형태보다 여행 스케치 같은 개인의 시각이 담긴 유람의 면모가 부각되면서 <한임강유람도권>으로 부르고 있다.

1796년~1797년 한강, 임진강변, 관악산과 도봉산 일대를 여행하며 화권을 이어 붙여 15미터가 넘는 두루마리에 실경을 그렸다. 장소마다 화면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여 자유로운 경험을 담아냈다. 그중에서 임진강 상류로 연결되는 영평천과 한탄강 일대를 따라가 보자.

첫 번째 그림은 ‘사암서원 앞 시내 백운담思菴書院前川白雲潭’이라고 백운담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발을 오른쪽에 적었다. 왼쪽 아래는 분홍빛 가을이 물들고, 그 위 바위 무더기에 백운담과 토운상吐雲床이라 글씨를 새겼다. 바위 뒤편 소나무들 사이 열린 담채로 단풍을 표현한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구도를 보면 수평이 되는 앞에서 그렸을 터인데 가을 물가가 얼마나 얇기에 시냇가 바위를 그릴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그림은 화면 왼쪽에 ‘사암서원思菴書院’과 마을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높은 벼랑을 그려 아래에 ‘창옥병초입蒼玉屏初入’이라 적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시점으로 그려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한다. 시선이 저절로 깊

어지니 그림을 감상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구도이다. 그런데 서원의 모습이 본래 서원의 구성과 다르다. 민가처럼 네 채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서원이라니. 사암서원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내고 당시唐詩 시풍에 힘써 두보에 비견되는 사암 박순의 은둔처를 기리는 의미로 효종 9년에 창건했다. 숙종 39년에 옥병서원으로 사액되었는데 굳이 사암서원이라 적은 것은 서원계 중심의 서원 운영이 불편한 남인계 정수영의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청렴하고 강직한 사암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

백운담과 사암서원의 물길 따라 ‘금수정金水亭’에 닿는다. 물길 따라 이어지는 장소인데 화가는 연속된 표현이 아니라 독립된 화면으로 구분한다. 금수정이 자리한 절벽과 주변 나무들의 묘사에서 풍경 사진을 담은 셔터처럼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창옥병에서 금수정은 거리가 3리라고 하는데 금수정 가까운 절벽에 창옥병이라 적고 섬세하게 표현한 것은 화가의 애정이 아닐까? 더불어 첫 장면에서 이어진 가을색이 물 흐르듯 금수정까지 배어난다.

마지막은 한탄강변 ‘화적연禾積淵’이다. 벼가리를 쌓은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는 못, 화적연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많은 문인과 화가들의 화폭에 담겼다. 그



정수영, <한강과 임진강을 유람하다(한임강유람도권)> 중 화적연

금수정

사암서원

백운담



금수정



금수정



송균절조 수월정신

림 속 바위는 주름의 효과인지 생김이 아무리 봐도 동물의 뒤통, 암전히 앉은 물개와 닮았다. 앞에서 보는 얼굴이 궁금하다. 나의 임진강 유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마를 지나고 찾아간 임진강변은 불어난 강물로 물길에 힘차다. 사암을 모신 옥병서원은 홍살문을 세우고 중심에 송현각이 자리한다. 서원 앞에서 굽어보면 영평천과 주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오른쪽 길 아래에서 창옥병 암각문을 기록한 사암의 「이양정기」와 한석봉 글씨를 소개한 안내문을 찾았다. 그 아래가 백운담이다. 더위와 씨름하며 찾은 길을 내딛는 걸음이 두근댄다. 물가 위쪽 벼랑에 선 조가 사암에게 내린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절조 있고, 물과 달처럼 맑은 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이란 글귀가 한석봉의 격조 높은 글씨로 남아 있다. 정수영의 백운담과 토운상이 새겨진 너럭바위로 보이는 곳에 찰랑찰랑 물길이 닿는다. 한강변을 담은 그림에 배를 탄 선비의 모습이 있는데, 이곳을 그릴 때 배를 띄우고 스케치했을까? 이곳을 제대로 보려면 물이 빠진 날이나 한겨울에 와야 할 것 같다. 옥병교에서 창옥병을 바라본다. ‘사암서원’과 ‘금수정’에 창옥병을 연이어 담고자 했던 정수영의 마음을 짐작하고 남을 만큼 장대하고 아름답다.

금수정은 영평천 옆 절벽 위에서 있다. 소의 머리를 닮아 우두정이라 했는데, 안동 김씨의 사위였던 양사언이 소유하면서 금수정으로 바뀌었



화적연

다. 금수정 뒤편에는 복원된 안동 김씨 고택과 묘단, 시비가 있다. 사암도 강변을 따라 금수정을 즐겨 찾았다는데, 정자에 사암을 비롯한 유명 문인들의 시문이 가득하다. 금수정 제밭에 ‘금수정은 예전에 듣기로 평평하게 흐르는 곳에 점지했다는데 지금 보니 암벽 위에 있다. 그린 자의 오류가 아니라면 필시 이 모습이 명백할 거다.(金水亭 曾聞占地平衍 今却在巖壁上 若非畫者之誤 必是此說之爽)’라는 강관의 글귀 때문에 위치가 더 궁금했는데, 누군가 고택을 둘러싼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바라봤나 보다. 정수영의 시점을 쫓아 강 건너에서 금수정을 올려보니 절벽 주변이 그림보다 넓게 펼쳐지고 생각처럼 창옥병은 그림 속에만 있다. 물가를 돌며 각도를 맞춰본다. 철새들도 즐겨 찾는 곳, 문득 정수영의 ‘금수정’에 더 애정이 생긴다.

화적연은 현무암 주상절리가 협곡을 이룬 계곡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S자로 굽은 강변은 물이 깊어 접근금지 표시가 곳곳에 있다. 궁금했던 물개 닮은 바위의 앞모습은 뒷모습의 연장선으로 엮드린 채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냥 멍뚱한 형상이다. 화적연을 그린 정선의 그림을 안내문에 소개했는데 화적암이 실경과 다른 봉우리 모양에 강변과 떨어져 우뚝 솟아 있다. 옆의 너럭바위와 연결해



창옥병

그린 정수영의 ‘화적암’이 실경과 더 가깝다. 속종 30년에 화적연에서 기우제를 지낸 실록의 기록을 볼 때 주변 주상절리 암벽들과 더불어 화적연은 신령스러운 공간이었을 것 같다. 지금도 강변의 자갈 모래에 서서 화적연을 보면 하늘빛과 어우러져 특별한 풍광 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난해한 울림이 지속되던 시절이 있었다. 소음은 물론이고 작은 기척에 숨 고르기도 어려웠다. 삶이 짐이 되는 날, 그렇게 안에서 깊어가는 생체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곳이 귀였나 보다. 생활공간을 옮기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고, 옛 공간과 시간을 촘촘히 더듬는 유람을 시작했다. 겁을 셀 수 없이 오밀조밀한 앞산과 뒷산의 굽이가 하늘과 들판과 강을 만나 빛어내는 변주에 힘을 얻고, 선인들의 그림자가 균형을 찾아 주었다. 정수영의 임진강 유람, 문인화가가 기행과 사경을 통해 마주한 시선은 보는 자의 마음자리가 온전히 담겨 우물 속을 들여다보듯 그렇게 마음이 기운다. 🌊

정은정 회원

아시아를 잇는 칠, 칠기

어린 시절 자개장롱은 부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다. 검은 바탕에 오색영롱한 조개껍질을 박아넣은 자개장은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고, 때로는 위압감마저 주었다. 급격한 현대화와 세계화로 미니멀리즘이 대세가 되면서 어느샌가 자개장은 사라져 버렸고, 원목가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세월은 돌고 도는 법. 슬금슬금 자개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자개 제품이 공예품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옛날 자개장의 문짝만 떼어서 테이블이나 벽장식, 혹은 파티션으로 재탄생시키는 일도 늘었다. 자개장의 강렬한 흑백대비는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아직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방 한쪽을 장악한 자개장의 높고 강한 이미지에 압도되면서 자개장이 옷칠공예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자개는 전복 같은 조개껍질을 이용한 나전칠기 공예지만 이를 붙이는 바탕은 옷칠을 한 나무이다.

옷칠은 품이 아주 많이 드는 어려운 공예이다. 제작공정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고급 기술이자 미술로 아주 오랫동안 각광을 받았다. 우리나라만 해도 늦어도 청동기시대에는 옷칠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중국 역시 꽤 이른 시기부터 옷칠을 했다고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칠기제품이 제법 많아서 2021년 12월에 <漆: 아시아를 칠하다>라는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멀리는 기원전 3세기로 추정되는 아산 남성리 돌널무덤, 그보다 늦은 기원전 1세기경의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칠의 흔적과 칠기제품이 발견되었다. 특히 다호리에서는 동검과 철검의 칼집과 굽다리접시까지 다양한



<漆: 아시아를 칠하다> 전시 포스터, 국립중앙박물관

옷칠제품이 나와 흥미롭다. 평양의 석암리 고분군에서 나온 칠기는 대부분 한나라 관영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중국 한에서 직접 유입되었다. 삼한시대, 이어지는 삼국시대 칠기의 다양성은 옷칠공예 기법의 발달과 제작이 활발했음을 알려준다. 백제 공산성 출토 갑옷을 비롯해 다양한 재료에 칠을 쓴 예가 확인되지만 완벽한 칠기공예로 남은 고려 이전의 미술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옷칠공예는 재료가 되는 옷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칠기를 만들 수 있는 제작지는 제한되기 마련이다. 칠은 아시아의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옷나무의 수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침전시킨 것이다. 원래 유백색을 띠는 옷나무 수액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황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나무통에 넣고 잘 저은 다음 삼베로 불순물을 걸러내면 생옷이 된다. 이 생옷을 다시 통에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약한 불이나 햇볕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투명한 옷칠 용액이 된다. 이 투명한 용액을 보통 나무에 칠하며, 때로는 자기·금속·종이에도 칠한다. 어디에 옷칠을 하느냐에 따라 칠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나무 위에 칠한 것은 목심木心칠기라 하고, 대나무에 칠한 것을 죽심竹心칠기, 가죽에 칠한 것은 칠피漆皮칠기, 금속에 칠한 것을 금태金胎칠기라고 한다. 특히 금태칠기는 금속이 산화되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나전칠기 때문에 칠기 하면 으레 나무에 옷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옷칠은 이처럼 다양한 재료에 적용한 기법이다. 옷칠을 하면 표면이 반짝거리는 광택이 나므로 미적인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옷칠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옷칠을 하면 물품의 강도가 높아지고 습기를 방지하여 녹이 슬거나 부패의 위험이 줄어드는 실용적인 효과도 있



나전 칠 봉황 꽃 새 소나무무늬 빗집, 조선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다. 옷나무는 예로부터 ‘옷이 오른다’고 알려진 위험한 나무이다. 옷칠 용액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은 물론이고, 여러 번 정제를 해야 기물에 바를 수 있는 도료가 되기 때문에 칠기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칠을 하고 칠기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당대 사람들이 칠기의 아름다움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는 나전칠기를 선호하여 전복과 같은 조개껍질을 감입한 공예품을 주로 만들었다.

옷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중국 전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대륙부 동남아 북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칠기를 만들었다. 중국 칠기는 역사도 길지만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우리나라 평양에서 발견된 칠기는 중국 호남성 장사 마양퇴 등에서 발견되는 칠기와 매우 흡사하다. 목재 그



화장품보관용 칠기세트, 중국 후한 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릇에 검은색이나 짙은 고동색, 혹은 붉은색으로 칠을 하고, 그 위에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림은 한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상의 동물인 용, 봉황과 구름무늬가 많다. 평양에서 발견된 칠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심칠기, 혹은 남태칠기藍胎漆器이다. 일제강점기 평양 남정리 116호분에서는 대나무를 짜서 만든 네모난 칠기 바구니가 발견된 바 있다. 전에는 이를 한자로 채협彩篋이라 불렀고, 이것이 발견된 무덤을 채협총이라고 했다. 이 채협은 뚜껑이 달린 직사각형의 대나무 상자인데 그 위에 옷칠을 해서 내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상자 둘레에 돌아가며 효자도를 그렸다. 한나라 미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효자, 충신, 열녀 등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유교적인 충효의 이념을 전파하려고 했다.

나전칠기의 극치는 역시 고려시대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전 칠 모란 넝쿨무늬 경전함>이나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합>도 명품이지만 정교함과 화려함의 극치는 역시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불자>에서 볼 수 있다. 불자拂子は 원래 인도에서 벌레를 쫓을 때 쓰던 차우리(cauri)가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해져 불교용품이 되었다.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불자>는 현재 몸통만 남아 있고, 원래 달려 있던 짐승의 털은 없어진 상태이다. 좁고 긴 몸통에 가느다란 금속선과 나전, 거북 등껍질인 대모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 대단히 정교한 세공 기술을 보여준다. 짙은 고동색 옷칠 바탕에 하얗게 빛나는 조개껍질과 수입한 열대 거북 껍질 뒷면에 노란색을 칠해 붙여서 주황색 꽃잎이 되게 만들었다. 오묘한 색의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불자, 고려 10-1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만든 목심칠기에 소조상 만들 듯이 반죽한 흙을 모양대로 붙여 장식하는 떠요(thayo) 기법도 다른 나라 칠기에서 보기 힘든 기법이다.

미얀마의 불교 공양구인 승옥(hsunok)은 소형 스투파형 그릇으로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을 담는 용기이다. 우리나라의 고배처럼 높은 기대에, 공양물을 넣는 원형 그릇을 올린 후, 뾰족한 탑처럼 생긴 뚜껑을 덮게 되어 있다. 이 승옥은 주칠을 하고 그 위에 떠요와 흐망지쉐차 기법으로 정교하게 장식무늬를 만든 후 금칠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었다. 흐망지쉐차 기법은 떠요로 부조를 하고, 색유리를 붙여 호사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기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달라도 같은 기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옷칠은 아시아를 하나로 이어주는 공예라 하겠다. 🍷

강희정(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소장)

조합으로 고려의 은은하면서도 세련된 미의식을 잘 보여준다.

특이하게도 중국, 한국, 일본 외에 칠기가 발달한 곳이 미얀마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이나 라오스의 칠기도 유명하지만 미얀마에서는 그와 전혀 다른 방식의 옷칠공예가 발달했다. 미얀마어로 용이라고 부르는 미얀마 고유의 칠기는 중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늦은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현대까지 실제 생활용구로도 칠기를 썼고, 특히 불교의식구나 공양구로 애용했다. 미얀마 칠기 중에는 단순한 흑칠이나 주칠을 해서 그릇 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 소박한 것도 있고, 장식용 그림을 그리거나 화려하게 조각을 하고 색유리를 붙여 꾸민 것도 있다. 미얀마 칠기 고유의 장식 기법으로는 흑칠이나 주칠을 한 뒤에 가는 선으로 장식무늬를 파고 다른 안료로 선을 메우는 일종의 상감기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감세공과 다른 점은 금속이나 조개껍질이 아니라 안료를 채워넣는다는 점이다. 나무로



칠 금채 공양그릇(승옥), 미얀마 18-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함께하니
좋지
아니한가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 코로나 팬데믹 시기 아이들이 듣던 캠페인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반가움보다 거리두기가 먼저이다 보니 어느새 만남은 조심스레 꺼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저 때는 이렇지 않았지,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 옛 그림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이나 식리(이익을 얻어 재물을 불림) 목적의 계와는 성격이 다른 계회, 이 문화의 기록화인 계회도契會圖입니다. 숨결과 말소리에 담긴 온기와 흥취가 고스란히 전해질 듯, 사람들은 서로서로에게 가까웠습니다.

조선 초기 계회도는 주로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관청의 동료들,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 관원들, 과거시험의 합격 동기들, 나이가 같은 관료들... 이들이 공유한 경험치와 정서적 동질감은 글과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계회의 사실을 기록하고 기념물로 소유하기 위해 제작한 그림”, 계회도는 기념사진 역할입니다. 참석자 수만큼 제작하여 각자 한 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회도는 시대에 따라 축(족자), 첩(책자형식), 병풍으로 장황되나 기본구성은 같습니다.



<금오계첩>, 19세기 초반, 서울역사박물관



<금오계회도>, 1697,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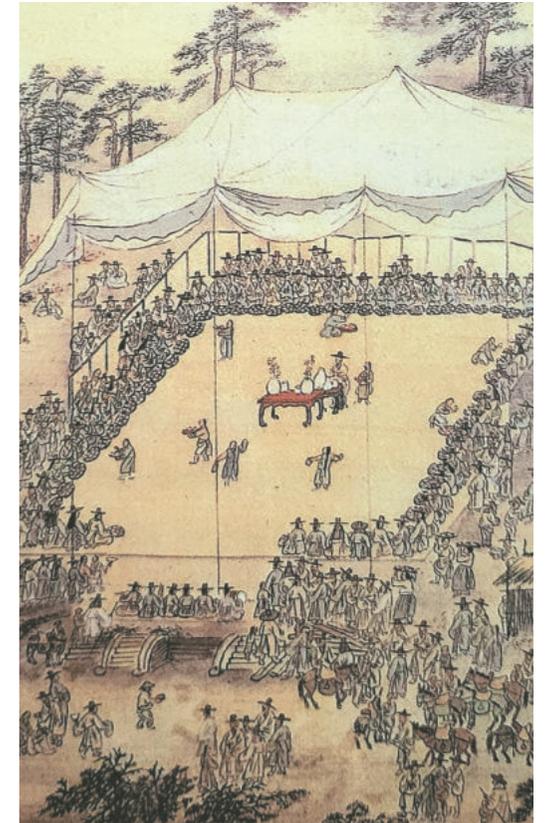
상단에 전서로 쓴 표제는 계회의 명칭을 밝힙니다. 계회가 어떤 계기로 열렸는지는 서문이나 발문에서 알려줍니다. 중단의 넓은 화면에 계회 장면을 담습니다. 시기에 따라 공간적 배경과 계원들의 비중은 달라집니다. 산수화처럼 너른 공간에 점처럼 작은 인물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단의 좌목에는 참석자들의 인적사항, 이력을 관계의 서열에 따라 적습니다.

몇 해 전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전시 ‘의금부 금오계첩’(2019.10.18. ~ 2020.2.23.)이 열렸습니다. ‘금오金吾’는 1414년부터 1894년까지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의 별칭으로, 《금오계첩》은 종6품 5명, 종8품 5명으로 모두 10명인 의금부도사들의 만남을 기록한 것입니다.

양반관료들의 계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오늘날 직장 동료들끼리의 모임에 해당하는 동관계회同官契會입니다. 소속을 중요시하는 동료의식,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밀한 관계 외에도 특별한 관행인 신참례 때문에 계회가 열렸습니다.

신참례는 신참을 면하게 한다는 면신례와 업무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다는 허참례를 일컫는데, 요셋말로 하자면 신임들의 신고식입니다. 선후배 도사들 간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돈독하게 하는 면신례에서는 신임도사가 성대하게 주찬을 마련하고 가혹한 벌칙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면신일에 첩을 나눈다.”는 규정에 의해 필수로 《금오계첩》 10본을 준비했답니다. 의금부에 함께 근무했다는 기념물인 금오계첩은 19세기 말까지도 만들어졌기에 다수가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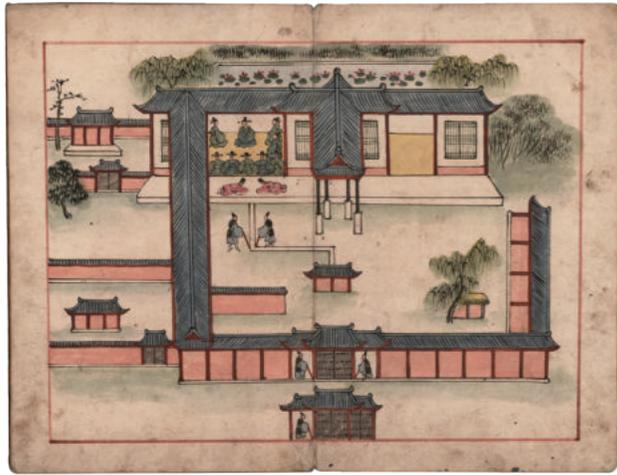
표현기법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림의 중심은 주로 의금부 청사입니다. 중심 건물은 죄인을 심문하고 공초供招를 받



김홍도, <기로세련계도>, 개인소장

는 호두각虎頭閣이고, 양옆은 당상관과 도사들의 근무 공간입니다. 호두각 주변엔 옥獄을 두었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는 서쪽에, 중죄수는 동쪽과 남쪽에 가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금부가 있었던 도성 내 중심부 견평방에는 감옥과 죄수의 일을 맡은 관아인 전옥서가 있었고, 근대에 들어서는 한성재판소와 대심원이, 일제강점기에는 종로경찰서가 위치했습니다.



<금오계첩>, 1803,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의 무게가 묵직한 곳에서 오래전 갓 부임한 신임도사의 심정을 가늠해봅니다. 호두각 왼편 낭관청에 자리한 10명의 도사 가운데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어깨가 움츠러 들었을 한 명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방의 양반이나 중인층에게도 계획도의 제작이 널리 퍼집니다. 1804년 9월 송악산 아래 만월대에서 개성에 거주하는 노인 64명의 계획을 기념한 <기로세련계도耆老世聯契圖>를 살펴봅니다. '기로세련계도'는 1607년에 있었던 개성 장로長老들의 모임을 계승한 계획도의 그림을 뜻합니다. '기로'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했던 문관들의 모임인 기로회를 연상시킵니다.

단풍으로 물든 송악산 아래,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일이 있고, 그 아래로 흰 수염의 노인들이 둘러앉아 각상을 받고 있습니다. 꽃병이 놓인 주철 상, 술 단지가 놓인 흑칠 상과 덩실덩실 춤추는 무동을 방형으로 감싸며 둘러앉은 노인들이 팔이라도 뻗으려 하면 옆 사람의 상을 엮을 듯 뻑뻑합니다.

이들은 상인이 아니라 삼포參圃를 경영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개성 세족들입니다. 계획이 열린 1804년 무렵은 조선 역사상 개성인의 위상이 특별했던 시기입니다. <기로세련계도>의 기문을 쓴 경기도 암행어사 지낸 홍의영은 개성을 '송양'이라 부릅니다. 이 별칭은 선죽교 근방의 정몽주를 주향으로 한 송양서원崧陽書院에서 기인합니다. 여전히 상인이 주도적 세력인 도시, 개성을 이익을 쫓는 장사치들의 고장에서, '절의' 있는 선비의 고장으로 보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줍니다.

<기로세련계도>는 기록화보다는 풍속화로 다가옵니다. 사실 본인도 못 알아보았을 계획도의 주인공들보다 시선을



<금오계첩>, 1799, 서울역사박물관

당겨 구석구석을 훑아보게 하는 것은 차일 밖 풍경입니다. 음식을 나르는 여인, 마주 보며 춤추는 구경꾼, 넘어진 취객...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잔칫집 모습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느껴질 듯했습니다.

화담, 박연, 지족사知足寺와 함께 개성을 대표하는 명승지이지만, 옛 도읍지 송도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시든 풀', '석양 피리 소리' 등으로 비유되던 만월대에 활기가 넘쳐 송악의 가을은 눈이 부십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듯 생생한 현장감을 전한 화가의 역량에 감탄하다, 눈에 익은 화풍에 흑시나 하며 당대 이름을 떨친 김홍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산수와 풍속이 한 폭의 화면에 무르녹아 있다." 평해지는 <기로세련계도>. 실제로 계획에 참석한 적 없는 단원의 말년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개성 유지들이 단원에게 그림을 부탁한 것은, 그림 솜씨 외에 그들의 위상에 걸맞는 궁중행사도 풍의 계획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박수 치며 흡족해 마지않았을 참석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기로세련계도>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남북 공동 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2015.10.14. ~ 2015.11.06)'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더욱 더 실감나는 화면 속 장면들에 흥겨워하면서, 남북의 공동 발굴 사실에 놀라움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송도는 도성에서 백여 리 떨어진 곳에 있어 건장한 말이 하루 달리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새삼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인 계획도,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소중한 인연들의 증표입니다. 🐼

문정원 회원



<금오계첩>, 1739, 고려대학교박물관



<금오좌목>, 17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답사기 ●●●

풍납토성 항공사진, 문화재청

자전거로 찾아간 한성백제

장마철 중간의 어느 갠 날에 이웃 동네에 자리한 한성기 백제의 유적들을 둘러보러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서울 최고의 자전거길은 모두 한강과 한강의 여러 지류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잔잔한 단천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이내 동서로 누운 너른 한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동쪽으로 달립니다. 서울을 횡단하는 자전거 고속도로에 진입한 셈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풍납동 토성입니다. 성내천 합수부에서 내륙으로 진입할까 하다가 조금 더 달려서 풍납토성 나들목까지 가기로 합니다. 요즘의 서울 시민들 못지않게 한성백제 사람들도 한강을 사랑하고 평지를 선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강과 그렇게 가깝게 도성을 건설해서 훗날 많은 연구자가 설마 여기가 하남 위례성이겠냐 하는 끈질긴 의구심을 갖게 했지

요. 몇 주 전에도 물 빠진 한강 둔치에 물고기들이 나뒹군다는 기사를 보면서 물가에 어머니 무덤을 쓴 청개구리의 근심이 생각났습니다. 풍납동에 살던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 홍수 때에도 반지하 친구 집에 물 퍼주러 가고 동네를 스티로폼 배 타고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어떤 홍수도 1925년 을축년 대홍수만 하지는 않았습니. 네 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무시무시하게 불어난 한강 물이 풍납토성의 서벽을 허물고, 잠실도(부리도)의 너른 뽕밭을 휩쓸고, 유서 깊은 송파장터를 날려 버리고,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아낌 없이 주고 사정없이 앗아가기도 하는 한강이 을축년에는 까마득한 세월에 묻혀버린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고 싶었나 봅니다.



풍납토성 서벽 발굴 현장



풍납토성 동벽 바깥쪽

서울의 옛것들은 죄다 강북에 있을 듯하지만 한강을 품고 피어난 최초의 고대국가 백제는 바로 이곳에 왕성을 짓고 700년 역사의 전반 500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6회 초까지 한성 구장에서 치르고 남은 경기를 웅진과 사비에서 마친 셈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까지 대체 어떻게 이 상습 침수지역에?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풍납동 토성의 서성벽 발굴 현장과 한성백제박물관을 다녀오니 모든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남아 있는 풍납토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토성의 뿌리는 아래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최악의 홍수도 다 쓸어가지 못한 서성벽을 발굴 조사하며 고고학자들은 초기 백제인들의 토목 기술과 인구, 엄청난 동원 능력이 의미하는 고대국가의 위력을 밝혀냈습니다. 겨울이면 동네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따뜻한 계절엔 어른들이 파를 심어 먹던 동네 언덕이 원래는 키가 5층 아파트만큼 높았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풍납토성의 실제 단면을 전사하여 세워두었는데, 아랫면 43m, 윗면 13m, 높이 11m의 웅장한 규모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서성벽 발굴 현장에서 오래전 토성의 원래 모습을 상상하면, 강의 변덕에 정면으로 맞선 백제인들의 자신감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여름이면 범람하는 거대한 강에 접하여 왕성을 구축한 이들은 불굴의 의지로 한강을 길들여서 500여 년 동안 해양 왕국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고 용도가 없어서 발굴할 때 고려나 조선의 물건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는 백제의 버려진 수도. 60년대,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없고 강남 주민들이 나룻배를 타고 강북으로 출퇴근하던 시절에 찍은 풍납토성 사진은 집 몇 채가 드문드문 보이고 전답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집들이 뻥뻥이 들어섰고, 90년대에는 가열찬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느라 땅을 깊이 파다가 백제 유물이 쏟아졌을 때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은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묻혀만 있다면 후대에 언제라도 발굴할 수 있으니 안심이지만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박합니다. 주민들의 무서운 반대를



풍납토성 단면 모형, 한성백제박물관



경당지구 우물터 음수대



풍납백제문화공원 주거지 표시

무릅쓰고 유물을 지키기 위해 현장 잠입을 시도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긴급 구제 발굴을(이라도) 가능케 한 고고학자들 덕분에 백제의 잃어버린 한성기 역사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당지구는 풍납토성이 왕성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국가적 제사 터 유적입니다. 화재로 거대한 건물이 소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목탄 층, 한꺼번에 쏟아 떨어진 기와들은 풍납토성이 함락되던 무서운 날을 상상하게 만듭니

다. 기우제를 비롯한 나라의 제사에 바쳐진 말의 머리뼈가 다수 출토되었고 왕실용 항아리, 중국제 도자기 및 가야 토기들도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발굴이 끝난 후 공원이 된 곳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오가다 들려 쉬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물이 발견된 터에 그 모양을 딴 음수대를 설치한 것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풍납 백제 문화공원은 성안에 종과 횡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교차하던 곳이고 집터와 건물터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땅을 파서 일부러 반지하를 만든 집터는 발굴 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다시 흙으로 덮고 그 위에 타일을 덮은 다음 평면도를 그려두어 방문자가 집의 규모와 구조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백제의 민가를 재현한 수혈식 초가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주변의 고층 아파트들이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호역 방향으로 달리면 북성벽 안쪽으로 풍납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좁다란 시장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행상 할머니들도 보입니다.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 콩국수를 먹으며 옛날 이곳 주민들은 시장을 성 안팎 어디쯤 이루고 살았는지 상상합니다. 원래 성안으로 흐르던 개천을 아무런 조사도 없이 복개하고 위에 집들이 들어섰던 기사를 읽었는데 그 개천이 백제 시대에도 있던 물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성벽 안으로 물이 들고 났다는 것은 성벽 아래로 수문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럼 홍수 때는 그곳을 막았을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수록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숫집을 나서서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니 얼마 전에 집이 헐렸는지 보상이 끝났다는 팻말이 걸린 공터가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렇게 발굴 가능해진 터가 늘어나면 성안에 분명히 있었을 궁궐터도 모습을 드러내겠지요. 가람터도 발견되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석조 조형물도 바랄 수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 아파트

들이 사라지고 나면 성 전체를 조망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게 능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성을 인가 없는 공원으로 텅텅 비우는 것은 왠지 맘이 편치 않습니다. 몽촌토성이 올림픽공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주민을 위해 쌓았던 성이니 주민을 두는 것이 맞게 느껴집니다.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드라마 세트장처럼 되는 것은 싫은데 말입니다.

고민을 멈추고 이제는 석촌동 고분군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분명 서울인데…… 거대한 적석분의 위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1917년에 만들어진 고분 분포도에는 현재의 석촌동, 가락동, 방이동 일대에 300여 기의 큰 봉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팽창을 거듭하며 오래된 무덤들은 산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에 영역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남아 있는 석촌동 고분군과 방이동 고분군은 자그마한 천 조각 샘플처럼 애처롭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공간입니다. 한적하고 평화롭고 왠지 시간여행의 뒤흔음이 가까이 있을 듯한 신비로운 공기가 흐릅니다.

백제를 보러 공주와 부여와 익산에 내려가면 백제인들의 유려한 미감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석탑이 갓 구운 빵 같은 가벼운 양감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 중국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왜에게 고대사라는 선물을 안겨준 사람들, 익산에 미륵 정토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 결국 염원하던 한성 복귀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한성에 남긴 유물이 조금씩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했으니 마음이 들뜬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니다. 자전거로 달려올 수 있는 옆 동네이니 특히나 풍납토성의 변화를 열성 팬의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

황문영 회원



몽촌토성에서 바라본 한강



보투리니 고문서

남아메리카 또는 라틴아메리카는 너무나도 먼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일 뿐 아니라 혼혈에 혼혈을 거듭해 메스티조, 물라토, 삼보를 비롯해 수십 가지 이름을 가진 복잡한 인종 구성, 300여 년간 계속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독립 이후에도 거듭된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다. 내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은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 숲』에서 읽었던 구절이다.

“멕시코 국립대학을 찾은 것은 줄곧 짊어지고 다니던 라틴아메리카의 짐을 어디엔가 부러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과연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짐을 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중략) 나는 먼저 학생들에게 코르테스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칼 같은 대답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질문을 꺼낸 것을 금방 후회하였습니다. 나의 시각으로는 코르테스는 분명 침략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피를 물려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혼혈의 독립'이었습니다. 혼혈의 독립이란 인디오 원주민과 백인 정복자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분법은 이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구체적 실체로 존재하는 멕시코 민족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식민지 경험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의 독립은 우리의 '해방'이 아닐 수도 있었다.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멕시코 국기 중앙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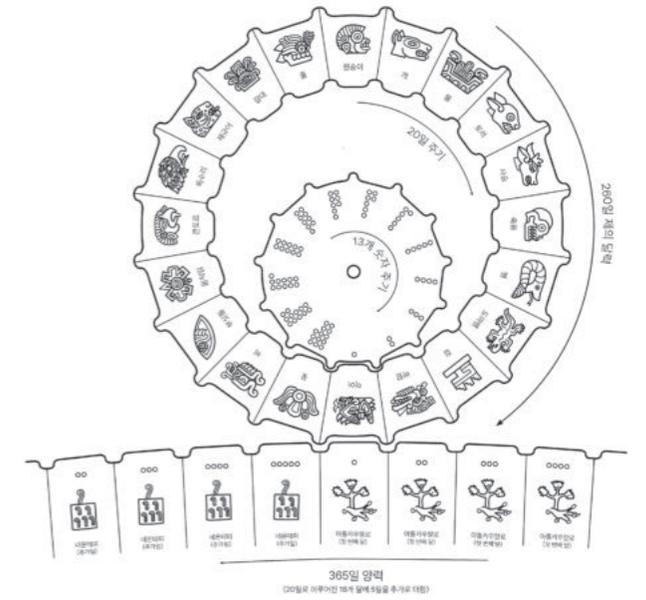
남아메리카의 3대 문명 아즈텍, 마야, 잉카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야 하는 지리시험 문제를 풀었던 기억도 어렵듯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 전시는 왜 '아스테카'일까? 첫 번째 의문이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시카'라 불렀고 오늘날 멕시코 공화국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아스테카'는 18~19세기경 유럽에서 생겨난 단어로, 이들의 신화에 나오는 기원의 장소 '아스틀란'에서 왔다고 한다. '아즈텍'은 아스테카의 영어식 표기다.

아스테카를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은 <보투리니 고문서(여정의 두루마리)>이다. 아스테카 제국이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멸망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 1746년 보투리니의 수집품 목록에서 발견되었다. 높이 17.5~18.5센티미터, 길이 470.5센티미터 크기의 종이 병풍처럼 접혀 있는 형태이다. 무화과나무 껍질을 두드려서 만든 아마틀 종이 위에 회반죽을 바른 뒤 그림을 그렸다. 문서의 내용은 한 종족이 신의 계시에 따라 고향을 떠나 200여 년간의 여정 끝에 정착하는 이야기이다.

12세기 초 멕시코의 북쪽 아스틀란('하얀 땅'이란 뜻)에 살던 나우아틀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태양과 전쟁의 신 우



제의력의 기본주기(13개의 숫자와 20개의 기호)



아스테카 제의력과 태양력

이칠로포츨트리('왼손잡이 별새'라는 뜻)의 계시를 받고 '약속의 땅'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여정 도중에 여러 차례 신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함께 출발한 집단들과 헤어져 독자적인 길을 가라는 계시도 있었고, '메시카'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라는 계시도 있었다. 그들은 한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4년이나 8년 정도 지나면 이동을 했으며, 20년 넘게 한곳에 사는 일은 거의 없었다. 200년 넘게 유랑하던 이들은 멕시코 중앙고원에 도착하여 정착하려 한다. 테스코코 호수 기슭의 땅은 비옥했지만 이미 다른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호수 가운데의 늪지대 섬인 테노치티틀란에 정착하는데 이곳에서 '방울뱀을 움켜쥐고 선인장 위에 앉은 독수리'를 발견한다. 신이 계시한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다. 1325년의 일이었다.

당시 이 일대에는 40여 개의 도시국가가 난립해 있었다. 아스테카는 주변의 강력한 도시국가인 아스카포찰코에 예속되어 공물을 바치고 용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정착 50년 후인 1375년에는 왕을 추대할 정도로 힘을 키웠고, 1431년에는 아스테카와 테스코코, 틀라코판 세 나라의 삼각동맹이 멕시코 중앙고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흐르자 세 나라 가운데 아스테카가 삼



코르테스가 제작했다는 테노초티틀란 지도

각동맹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스테카는 정복전쟁을 계속 벌였고 정복한 땅의 왕을 바꾸지 않고 자치권을 주는 대신 많은 양의 공물을 납부하게 한다.

아스테카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역법 즉, 달력에 담긴 이들의 세계관을 알아보는 일이다. 우리에게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아스테카 사람들에게는 태양력과 제의력이 있었다. 한 해가 365일인 태양력은 한 달이 20일이고 한 해는 18개월이다. 나머지 5일은 여분의 날로 세상에 변화가 생기는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사제가 종교행사 등에 사용하는 제의력은 20가지 기호와 13개의 숫자를 결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260개이므로 제의력의 한 해는 260일이었다. 이 달력은 날짜마다 이름이 있었다. 1악어, 2바람, 3집, 4도마뱀…… 13갈대까지 간 다음, 다시 1부터 시작해 1재규어, 2독수리, 3콘도르 식으로 나간다. 13과 20의 최소공배수는 260이기 때문에 첫날은 항상 1악어였다. 이 두 달력은 52년마다 일치했다. 이때가 되면 ‘새 불 축제’를 열어 이전의 모든 불을 끄고 새로 지핀 불로 새 시대를 맞았다. ‘태양의 돌’은 이런 아스테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잘 보

여주는 유물이다. 1790년 멕시코시티 대성당 서쪽 탑 근처에서 발견된 지름 358센티미터, 두께 98센티미터, 무게 25톤의 유물로 아스테카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목테수마2세(1502~1520)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가운데 있는 얼굴은 현세를 창조한 태양신 토나티우(‘제5의 태양’)이다. 허를 내밀고 두 손에는 인간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 두 번째 동심원에는 태양신화를 새겼다. 1시 방향 사각형에는 첫 번째 태양인 ‘4재규어’가 보인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재규어에게 잡아먹히면서 멸망했다. 11시 방향에는 두 번째 태양인 ‘4바람’이 있다. 이 시대는 태풍으로 끝났으며 남은 사람들은 원숭이로 변했다. 7시 방향에는 세 번째 태양 ‘4비’가 있다. 이 시대가 불의 비로 끝날 때 인간은 나비와 개, 칠면조로 변했다. 5시 방향의 네 번째 태양은 ‘4물’이다. 이 시대는 홍수로 끝났고, 사람들은 물고기가 되었다. 현세는 다섯 번째 태양 ‘4움직임’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움직임, 즉 지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움직임의 태양’은 종족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츨리가 지배한다.



태양의 돌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이 탄생했다고 믿었다. 이 태양이 인간을 위해 엄청난 노고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양을 먹여 살려야 하며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테노초티틀란에 정착해 도시를 네 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신전을 세웠다. 정면이 서쪽으로 향한 대신전 템플로 마요르는 거대한 기단 위에 네 층의 단을 쌓아올린 피라미드 모양이다. 113개 혹은 114개의 계단 꼭대기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다. 남쪽 신전은 태양과 전쟁의 신 우이칠로포츨리, 북쪽 신전은 비와 풍요의 신 틀랄록을 숭배하는 신전이였다. 남북 340m, 동서 360m의 크기였던 ‘신성구역’에는 이밖에도 여러 신전과 건물들이 있었다.

아스테카 제국의 경제는 농업과 전쟁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작물은 옥수수였으며, 달력이 옥수수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져 있었다. 옥수수의 신 ‘신테오티’와 여신 ‘치코메코아틀’은 옥수수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실로넨’은 어린 옥



실로넨

치코메코아틀



그래픽으로 복원한 템플로 마요르

수수의 신이다. 늙은 여인의 모습인 ‘일마테쿠틀리’는 잘 익은 옥수수를 상징한다. 옥수수를 심을 때는 강낭콩과 호박을 함께 심는 혼합농법을 사용해 수확량을 늘리고 지력을 유지했다. 용설란의 어린 꽃봉오리와 잎에서 채취한 시럽을 발효해 만든 알코올 음료 풀케를 신성시해 축제나 행사 때만 마실 수 있었는데 환자나 52세가 넘는 사람에게는 하루 3잔을 허용했다. 전쟁을 통해 복속시킨 지역에서 징수하는 공물 역시 아스테카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공물 부과량을 늘리면서 피정복국가의 불만이 커졌으며, 1519년 2월 에르난 코르테스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수천 명의 원주민이 이들 편에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전시 제목이 다시 떠올랐다. 참 잘 지은 제목이었구나.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니,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카카오, 초콜릿, 아보카도, 토마토, 칠리 같은 먹거리나 매리골드, 분꽃, 달리아 같은 꽃도 아스테카 출신이라니 더욱 그러했다. 🌱

김문숙 회원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박물관의 학술 연구 사업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제12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모분야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으로 구분하고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 등으로 한정하고 세계문화는 우리문화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다.
- 박물관 기획특별전 전시도록(전시기획, 디자인, 도판해설, 도록편집 등 포함)
- ※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은 제외.

2. 응모자격: 등록된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학예사 및 직원 또는 부서

3. 응모대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이 발간한 연속 간행물에 2022년도에 게재된 것. (연속 간행물은 공모 마감일 기준으로 3년간 3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는 것) 2022년도 기획특별전 전시도록

4. 출 품 수: 1인 1편(전시도록은 박물관 부서명)

5. 공모 서류: 논문 - 신청서(소정양식), 박물관 확인증 사본, 간행물 1권, 논문자료 파일, 재직증명서, ※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특별상 - 신청서(소정양식), 박물관 확인증 사본, 전시도록 1권

6. 접수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7. 제출 방법: 전자우편(gomuseum@hanmail.net)으로 접수하고, 간행물은 우편(마감일 도착분) 및 방문 제출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

8. 발표 및 시상: 2023년 5월 중(수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지)

9. 수상 및 부상

- 천마상 1명(일천만 원), 금관상 3명(오백만 원), 은관상 5명(삼백만 원), 특별상(전시도록) 2곳(삼백만 원)
- ※ 우수한 성과물 및 적정 범위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고 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다른 상의 수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10. 참 조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기관인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작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회로 문의(02-2077-9795)



당백전.대한제국실

왕 중 왕

나는 새도 떨어뜨린
왕의 아버지,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려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
재건을 꿈꿨다.

대원군의 권세가 낳은 당백전,
상평통보의 백 배 가치를 업었지만
육 개월 천하.
아스라이 스러져간
지난 영예를 가만히 들려준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회 장	윤재륜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상임고문	신성수														
당 연 직	민병찬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감 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김교태 김남연 김승겸 김익환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세아제강 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 대표이사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회원	김대환 김영명 김영희 김재훈 김종한 남태훈 류방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서재량 성태은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양홍석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상재 이정용 정은미 최웅선 함영준 홍정도 홍진기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주)예울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이사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 아울렛 상무
천마회원 김석수 김신한 남수정 박진원 배동현 손창근 송치형 신성수 신현철 윤석민 윤장섭 윤재륜 이옥경 정용진 전재범 조현상 전신일 최두준 허용수 허운수 홍석조 홍정욱	동서식품(주) 회장 MIT Visiting Fellow (주)켄애프드 사장 두산산업차량(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소장가 두나무 회장 이교상 이규식 이명희 이주성 이주한 이택경 임종훈 장신하 장인우 정명훈 정재봉 (주)동남유화 회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니카 회장				

금관회원 강덕수 경 원 권준일,구재선	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은관회원 강원기 권지혜	오리는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아이에스지주 전무
--------------------------------------	---	---------------------------	------------------------------

청자회원

강승모 고기영 구동휘 구본권 구본상 구분옥 구분혁 구원경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E1 대표이사, 전무 LS-Nikko동계련(주) 전무 LIG 회장 (주)LK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	---

구원희 구은성 국현영 권재현 권택환 김진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두식 김미원 김민수 김상운 김성남 김성환 김세연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운수 김은혜 김인순 김재열 김재주 김중학 김지태 김태현 김태훈 김택진 김현강 김희경 노재연 담서원 류중희 문수희 문윤희 민경남 민병철 민준기 박법준 박선경 박재상 박재연 박정빈 박정원 박주원 박준영 박해준 박혜성 방정오 배윤식 백진우 봉 옥 서동임 설윤석 손원탁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워크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반도건설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주)에울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주)삼익악기 스펙코 부회장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지일앤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두원중공업 부사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오리온 수석부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회원 어피티티 에쿼티 파트너스 덴톤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느 에프씨 대표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케미컬 사장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	---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훈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 관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수경 이승용 이영준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성 이우일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해진 이 혁 임지선 임채현 장동진 장성진 장승준 양형재단 전영채 전윤수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이 정혜인 조병순 조연주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부사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 CSO/자동차부품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그룹 부사장 (주)에이티넬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회원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농능 경영총괄 사장 SGC에너지(주) 부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통령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회원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보해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	---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주신흥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천석규 최신목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원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옥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치홍 현명관 현지호 호창성 홍범석 홍석표 홍원복,김근호 홍정국 홍정인 홍정혁 황인규 황정환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가은소사이어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주)카카오/카카오에이 보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현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리크라상 사장 GS리테일 상무 회원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호성공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BGF 사장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BGF 부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에너지 대표이사 (주)케이지에프 전무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2022. 8. 31. 기준
--	--	------------------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회원
성암고서박물관장
한솔케미칼 부회장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